



“전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 문재인 대통령, 전남 ‘블루 이코노미’적극 지원키로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참석...12일 전남도청
김영록 지사, 에너지·관광·바이오 등 5개 분야 미래 전략 보고

“전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지난해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12일 10번째 전국 순회 경제투어 방문지로 전남도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의 미래 발전 전략인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무안 남악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제 전남은 천년을 이어온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역사

를 써나갈 준비를 마쳤다”며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영록 전남지사로부터 ▲에너지 ▲해양관광 ▲바이오 ▲운송 ▲은퇴 도시 등 5개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보고받고 축사를 통해 전남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줬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열 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

킨 호국정신이 서린 곳으로 넉넉하고 강인한 정신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아왔다”며 전남의 구국정신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 “1978년 해남 대흥사에서 전남과 인연을 맺었다”며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을 언급해 전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큰 박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산업과 관련,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광 산업과 관련, “천혜의 해양 관광·문화 자원과 청정한 환경, 안전하고 맛있는 친환경 먹거리가 풍부한 전남은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매력 만점의 관광지”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전남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를 조속히 완공하고 KTX와 경전선을 연계해 무안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환경부·해수부·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박지원·이용주·윤소하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광주·전남 추경예산 비롯해 내년도 국비확보 청신호
“지역 예산 빠짐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터”

내년도 광주·전남 국비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광주서구갑)과 함께 나

란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원은 전체 의원 300명 중 5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을 확정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21명, 한국당 19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예결위원 50명

명, 바른미래당 5명,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1명 등 48명이 선임됐다. 나머지 2명은 무소속 의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예결위원들은 내년 임기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서삼석 위원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각종 민생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광주·전남 지역 예산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도당위원장, 농산물 가격 하락 종합대책 마련 '촉구'

대통령, 국회의장, 정부부처에 서신...양파·천일염 구매운동 호소 농협전남본부와 '양파 팔아주기'발대식도 개최



서삼석 도당위원장(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부처, 국회의장, 광역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 389개 기관에 양파와 천일염의 구매운동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현재 '2019년산 중만생 양파' 가격은 재작년 기준으로 20kg 당 2만4천원이었던 도매가격이 지금은 9천100원에 불과해 2년 사이 62%가 넘게 폭락했다. 농가들은 생산비 보전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천일염도 매우 심각하다. 2011년 1kg당 525원이었던 가격이 2018년에는 145원으로 8년 사이 72.4%나 폭락해 고사 직전의 상황에 놓여있다.

서 위원장은 서신을 통해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 농어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큰 위기에 봉착한 농어민들을 위해 기관 차원의 구매운동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공약을 통해 농어업을 챙겨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하셨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정부의 미래 농업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지난달 4일 농협 전남본부 협력 하에 전남 양파 팔아주기 발대식을 갖고 양파 123톤을 출하하는데 이어 같은 달 11일 양파 수급

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금은 절반이 넘게 하락한 11,200원에 불과하여 생산비조차 못 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지난달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증액에 그쳤다"며 예산확대와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3월에는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도당, 양파수확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에서 1천여 평 양파 수확 봉사

전남도당은 지난달 6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무안 양파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부인 정옥금 여사, 전경선 상임부위원장(도의원), 박현숙 여성위원장, 김갑봉 사무처장과 당직자 등 30여 명은 이날 오전 무

안군 일로읍 복룡리 흥덕순씨의 양파밭 1천여 평에서 양파 수확 일손돕기에 나섰다.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무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남의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5.2%가 감소한 6천525ha이지만 생산량은 사상 최대의 작황 호조로 43만8,480톤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의 경우 평년 대비 15만1천톤이 과잉 생산돼 조생양파 61.3ha에 이어 중만생 양파 20.6ha가 벌써 산지 폐기돼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농협과 무안군, 기업체 등과 협의해 양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시장격리 물량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농가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당 전국노동위원회-전남도당 현장간담회

'노동존중 정책협약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제안...2일 도당회의실

이수진 최고, 박해철 노동위원장, 최병용 전남노동위원장 등 50여 명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박해철)는 2일 도당 회의실에서 전국 순회 현장 간담회를 갖고 노동단체들과의 '노동존중 정책협약' 추진 등을 통해 노동계와의 결속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

이날 간담회는 2020 총선에 대비하여 노동계와의 결속력 및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부문 정책당원 배가 및 노동계 출마자 발굴, 시·도당 노동위원회와의 노동 현안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노동계와 농민 등 소

외계층이 정치활동에 참여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도당에 가칭 '노동존중 정책협약 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중양당과 정부에 지방공기업과 각급 학교 등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적극 건의해 임금이 낮아도 골고루 만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이 "2020 총선 승리를 위해 노동은 무엇을 할 인가"에 대해 발표를 한 뒤 자유토론, 질문 등이 이어졌다.



도당, 이희호 여사 별세 애도 성명

"한국 민주화 과정의 버팀목이자 숨은 공신...깊은 애도와 추모"

전남도당은 6월 11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97세를 일기로 10일 밤 소천한데 대해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밝혔다.

도당은 이날 고 이희호 여사 서거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고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서 역사적 고비마다 늘 그의 곁을 지키며 더 강한 투쟁을 하라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었던 고인이야말로 한국 민주화 과정의 버팀목이자 숨은 공신이었다"고 추모했다. 이어 "오랜 가택연금과

도청, 감청 등 군부독재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화 투쟁은 물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온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3월부터 노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10일 밤 타계했다.

한편 도당 산하 선출직 및 당직자들은 이날 남악 김대중광장 이희호 여사 분향소를 찾아 헌화, 분향했다. 도당은 산하 10개 지역위별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14일(금)까지 운영했다.

“이주여성인권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및 근절 나선다”

전남도당, 이주여성 가정폭력사건 긴급 대책회의 8일 당내 사회복지전문가 12명으로 이주여성인권보호특위 구성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당이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에 나섰다.

전남도당은 지난 8일 도당 회의실에서 박현숙 도당 여성위원장, 김화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성위원회 위원 및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이현창)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이주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조직 및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도당 여성위원회와 다문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이주여성인권보호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12일 특위 발족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

최한 뒤 공식 발족했다. 특위는 박현숙 여성위원장(정다운재가복지원장), 이현창 다문화위원장(도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하혜순 도당 여성국장, 김은숙 지역아동센터장(목포), 백영남 인권지원상담소장, 이현명 당원(진도) 등 사회복지전문가 12

명이 참여했다. 또 이은성 고구려대 교수(다문화복지학), 이주여성으로는 에드나 베델라루즈(필리핀), 이랑(베트남), 레티미자우(베트남)씨 등이 위원

으로 선임됐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폭력남편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고 향후 피해자 구호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사무처장단 워크숍

목포 상그리아호텔...21일부터 2일간
공조직 활성화 및 당 현대화추진사업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목포 상그리아호텔에서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조직 및 지역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자치회 등 지역위원회 활성화 및 조직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당 현대화추진특위(위원장 박주민)에서 준비 중인 당원 관리 및 당원 투표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됐다.

이해찬 대표의 공약으로 설치된 당

현대화추진특위는 온라인 당원 소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당원자치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래로부터 소통하는 플랫폼 정당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윤호중 당 사무총장과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김감봉 전남도당 사무처장을 비롯한 각 시·도당 사무처장단, 중앙당 총무조정국장, 조직국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서삼석 도당위원장, 김영록 지사, 우기종(목포) 주철현(여수갑) 신정훈(나주화순)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해 시·도당 사무처장들을 격려했다.

2019 1기 ‘민주정치 아카데미’ 성료...12일 수료식

정치신인·활동가 등 60명 참여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신인 및 활동가 발굴과 뉴 리더 양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2019년 제1기 ‘민주정치 아카데미’가 지난달 21일부터 12일까지 22일간 열렸다.

아카데미 첫날인 21일에는 개강식과 함께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원의 ‘전남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방안’과 민주연구원 문병주 수석연구원의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 강의가 실시됐다.

이어 ▲김영미 동신대 교수(관광으로 먹고 사는 전남) ▲박민서 목포대 총

장(인구절벽 사회, 복지국가의 방향) ▲박광운 국회의원(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우원식 국회의원(공정과 평화) ▲연구흥 한신대 총장(민주화와 평화통일) ▲박용진 국회의원(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강의 등 4주 동안 8개 강좌가 실시됐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각 지역위원회 추천을 받은 정치신인과 활동가, 여성청년 핵심당원 등 60명이 참여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정치지망생들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21대 총선 승리를 견인할 지역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아카데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 전남도당 2020총선 정책토론회

2020총선 핵심 변수는? (문병주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대통령 지지율, 야권 정계 개편, 20대 표심”

2020총선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지지율, 야권 정계 개편의 방향, 그리고 국정 발목론과 경제 심판론의 총선 프레임 공감도 등이 제시됐다. 또 이념과 세대(특히 20대의 표심), 지역구도(부산·울산·경남지역의 표심) 등의 유권자 지형변화에 따라 총선 구도가 출렁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문병주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5월 29일 전남도당 주최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2020총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좌장은 동시대 조만형 교수가 맡았다. 다음은 토론회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요지.

주제발표

2020총선의 변수와 지형 변화, 총선 준비 제언(문병주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20총선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지지율 ▲정계 개편과 프레임 ▲유권자 지형변화 등이 꼽힌다.

첫 번째 변수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지지율은 대통령의 후광효과(presidential coattail effect)의 지속 여부, 그리고 정부 심판론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 등에 따라 총선에서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야권 정계개편의 방향이다. 민주평화당의 제3지대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 성사 여부 등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수적폐 심판인가, 아니면 좌파독재 심판인가 등의 총선 프레임 설정도 중요하다.

문 수석연구위원은 유권자 지형을 이념·정책구도, 세대구도, 지역구도로 나눠 설명하고 “부동층·중도층 유권자의 선택 및 20대 젊은 층의 표심, 이른바 부·울·경 지역의 표심이 내년 총선의 판도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남의 핵심 정책과제 제언(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년 총선에서 전남의 핵심 정책과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인구감소 시대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공공시설재편, 농정 여건 변화에 따른 직불제 개편 검토, 미래형 신산업 집중 육성 등이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지역발전상생기금 제도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방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구축사업은 전남에서 경남·부산까지 섬 해양관광자원을 연결하여 남해안 전체를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해안 경제권이 활성화되면 다핵적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세부 사업으로는 목포·여수 국제 연안 크루즈 관광 기반시설 조성,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한 동서통합 문화권 조성, 영산강 권역 특화개발 및 마한문화유산 세계화 등을 제안한다.

지정토론

2020총선 단상(우승희 도의원)

내년 총선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전에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틀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

총선 준비는 조직적 측면에서 ▲당의 혁신 ▲지역조직 정비 강화 ▲젊은 층에 대한 대책(정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가짜뉴스 강력 대응)을 마련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역대 최대 예산 확보 성과 홍보 ▲생활 SOC 등 주민 삶과 연계된 정책 제시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이 중요하다.

전남도당의 과제(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책적 비전을 보여줘야 하고, 재집권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유권자에게 각인되어야 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정권 재창출 희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어게인 2016'의 가능성도 있다.

20대 총선에서의 교훈을 잘 살피 선거제 개편 등 새로운 정치지형과 선거환경의 변화에 맞춘 선거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민심을 끊임없이 살피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선거구도가 비례선거가 아닌 조직선거로 치러진다면 도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경선을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21대 총선, 변수와 전망(배상현 뉴시스 부국장)

내년 총선은 야당의 공세로 '적폐청산'보다는 '정권평가' 프레임이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밀릴 것으로 보이나 지난 총선처럼 돌풍 가능성은 없다고 보며, 정부 정책과 여당의 지지율, 공천과정의 투명성, 선거구 확정 등의 변수가 민심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특히 계파 챙기기 공천을 경계하고, 당 지지도를 위협할 수 있는 공천 갈등이 없어야 한다.

21대 총선에 바란다(신대운 지방분권 전남연대 상임대표)

내년 총선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정책들로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전문분야 일꾼들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철저히 기능적으로 배분 ▲어떤 문제들이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의회민주주의 확립 ▲기초의원 정당 무공천을 제안한다. 이런 개혁정책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꼭 이뤄져야 한다.

전남, 새천년의 꿈과 21대 총선(김영미 동신대 교수)

문재인 정부 2년 간 전남·광주지역 대선 공약사업 국고반영률은 60%를 달성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말 공약 이행률은 각각 40%와 10%에 불과했던 것에 비추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21대 총선 승리전략은 전남의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공약', '손에 잡히는 공약'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서삼석 도당위원장, 등원 1년 주요 성과



“소금처럼...서민과 사회적 약자, 농수축산인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현안 중심 입법활동...대표발의 30건, 공동발의 255건
호남 유일 집권여당 예결소위 위원 활동...역대 최대 예산확보 성과

지난해 6.13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서삼석 도당위원장(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6월 13일 등원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의무 중 하나인 국회 본회의 참석률이 본회의, 상임위, 예결위에 걸친 소속 위원회 회의 참석률 모두 100%로 나타냈다.

국회의원의 주요업무인 입법활동의 경우 대표발의 30건, 공동발의 255건으로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 도서지역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병원선 지원 근거 마련 ▲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 사회적 농업 육성법 등이다. 또 ▲ 낚시어선 안전성 강화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 수상레저안전 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수상 레저안전의 국가책임 근

거 마련 ▲ 우수 천일염인증품 소비촉진 ▲ 국내산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 면세유 취급수수료 폐지 ▲ 가축 질병 역학조사관 양성 ▲ 농업인 월급제 정착 보조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대상범위 확대 ▲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 등 농어촌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연간 187회에 달하는 서울-지역간 교통편 이용으로 일주일에 평균2회 가량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등 상임위 활동에서는 ▲ 도서지역 수자원 확보 및 가뭄대책 ▲ 농어촌여성 삶의 질 향상과 농수산물 수급안정 ▲ 여객선 시계제한 운항통제 신뢰성 확보와 도서주민의 교통기본권 증진 ▲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 가축방역 국가책임화 ▲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업 ▲ 근해어업 활성화 대책마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생국감 활동을 펼쳤다.

이밖에 호남 유일의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남·광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국비 확보사업은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기본설계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400억 증액, 영산강IV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500억 확보,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타당성 용역비 등이다.

서 위원장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채찍을 들어주신 지역민들과 후원인,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며 “소금처럼 정직한 땀과 쉽 없는 열정으로 서민과 소수 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국회등원 1년을 맞아 지난달 13, 14일 양일간 무안과 신안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입법 및 본회의 참석률 등 관련내용은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지사, 민선7기 1년 기자회견

“‘블루 이코노미’ 본격화하겠습니다”

블루 에너지·블루 투어 등 5대 프로젝트 시행
양질 일자리 창출·수요자 맞춤 행복시책 확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26일 민선7기 출범 1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도정 방향 중심에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최우선으로 점목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블루 이코노미는 바다, 섬, 하늘, 해양, 바람, 천연자원 등 전남의 풍부한 블루 자원(Blue Resources)을 활용해 포용적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경제 합성어다.

이의 실현을 위해 ▲블루 에너지(미래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블루 투어(남해안의 기적 신성장관광벨트) ▲블루 바이오(바이오 메디컬 허브 전남) ▲블루 트랜스포트(Blue Transport,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의 중심) ▲블루 시티(은퇴없는 스마트 블루시티) 등 5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전남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처방에 나선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 지원과 함께, 전

남형 일자리 발굴 및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행정 지원도 계속된다.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가칭)을 전면 시행하고 스마트팜 혁신벨리를 통해 농업 혁신성장 모델로 육성한다.

한반도 아열대화를 대비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한다. 오는 2023년까지 아열대작물의 생산·가공·체험 등 융복합산업화가 주된 내용이다.

2022년까지 도내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을 100개소로 늘려 어촌 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수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양식 시범모델 공모’ 준비에 매진하고 수산식

품 수출단지를 조성해 수산식품산업을 수출주도형 전력사업으로 육성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복시책은 남은 민선7기 기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까지 전남형 혁신인재 1만명을 육성을 위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된다.

소통과 안전이 우선인 도민 제일주의도 강화된다. 순천시 신대지구 일원에 들어서는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은 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된다.

민박간담회, 도·시·군 협력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 및 광역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국고예산 7조원 시대 개막을 맞아 지역 핵심 SOC를 확충한다.

김 지사는 “전남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원석과 같으며, 현실의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라며 “도민의 지혜와 열정을 결집해 새천년의 웅대한 비전과 청사진 실행에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한전공대 정상 개교 ‘확고한 의지’ 밝혀

신정훈 지역위원장 문대통령에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구축 건의
12일 전남도청·나주혁신도시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해 한전공대 정상 개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면서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대학 설립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나주의 에너지신산업, 화순의 백신산업 특구를 기반으로 한 의료융복합클러스터를 등이 대한민국 경

제를 선도하는 블루칩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경제투어 10번째 일정으로 전남도와 나주 혁신도시를 각각 방문한 자리에서 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과 에너지신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전남도청서 열린 블루이

코노미 비전 선포식에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에너지밸리로 특화시키고, 에너지밸리가 차세대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전공대는 “예정대로 오는 202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임기 내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 재정지원 규모, 부처 간 이견, 한전의 경영 적자, 이에 따른 일부 정치권 반발 등 대학 설립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과 각종 논란을 일축하고 한전공대 정상개교를 사실상 확정짓는 중대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은 이날 빛가람전망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한전공대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한전공대와 국가 에너지산업, 4세대 가속기센터 등 에너지신산업의 선점을 위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더불어 빛가람 열병합 발전에 대한 정부주도의 해결방안을 요구한 건의서를 배석한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전달, 적극적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송정역과 나주혁신도시, 화순을 거쳐 순천을 연결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환영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배 ‘농작물 저온 피해’ 재해인정 복구비 48억 확정

4월 중 이상저온 피해 면적 1,825ha 대상 복구비 지원
신정훈 위원장,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 성과”



올 봄 이상저온 현상으로 작과 불량 피해를 본 나주지역 배 농가에 대해 재해복구비 지원이 이뤄진다.
나주시는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농림부가 피해농작물 복구비 48억원(국비 34억,

도·시비 7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 가까이 인상된 금액으로 농가당 평균 200만원 이상을 지원받게 됐다. 또 앞으로 태풍 피해, 벼 목도열병 피해도 인상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나주에서는 지난 4월1일부터 4일까지 이상저온에 의해 배과수 1729ha, 복숭아 27.7ha, 단감 31.8ha 등 총 1825ha가 저온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미한 피해로 지원에서 제외된 31농가(3.7ha)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 조례’를 적용해 자체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대책법에서는 이상저온 피해 면적이 ‘50ha’ 초과시 피해 복구비의 국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신정훈 지역위원장은 “농업인 재해 피해를 돕고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끈질긴 노력으로 해낸 일이다”며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정훈 위원장, 화순군 6·25전쟁 69주년 행사 참석

화순군 6.25전쟁 제69주년 기념행사가 지난달 25일 하니움만연홀에서 열렸다.
6·25참전 유공자회 화순군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참전용사,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 6·25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며 평화와 번영을 다짐했다.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조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는 이때 나라 사랑 정신과 국가의 소중함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공동선언 ‘통일쌀 경작사업’ 모내기 참여



신정훈 지역위원장은 6·15 공동선언 19주년을 앞두고 지난 14일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들녘에서 진행된 ‘통일쌀 경작사업 모내기’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신 위원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농민단체 회원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신 위원장은 “진정한 교류 협력과 통일의 시작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절박한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쌀 한 톨 한 톨이 통일의 염원이고 평화의 산물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나주SRF발전소, 광주권 고품연료 반입 불가 및 광주 처리를”

신정훈 위원장, SRF·죽산보 문제 해결 문 대통령에 건의 ...12일 문재인 대통령 나주 방문 성과 기자간담회



신정훈 지역위원장은 16일 나주시의회 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나주방문 성과와 과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와 ‘죽산보 준치’ 여부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SRF 문제와 관련,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혁신도시 빛가람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2008년 전남 6개 시·군이 체결한 기본협약과 관련이 없는 광주시의 SRF 반입 불가 및 광주 처리 입장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기본협약’은 환경부와 전남도 주도로 나주시·화순군, 목포시·신안군, 순천시·구례군 등 전남 6개 지자체가 참

여했다.

신 위원장은 기본 업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권SRF 사용은 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합의된 주민수용성조사 결과에 따라 1,600억원 대로 추산되는 SRF 발전시설물을 매몰처리할 경우 지역난방공사 주도로 손실 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매몰처리 이후에도 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사업자 지위는 유지시켜 지속적인 집단 에너지(열) 공급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연내 해체 여부를 결정하게 될 죽산보 문제에 대

해 “찬·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준치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영산강의 수질·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모니터링과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산강 하구 연 개방과 죽산보 유입수의 수질 개선 근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SRF가동 및 죽산보 준치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방문으로 한전공대와 에너지밸리 건설이 본격화돼 나주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화순지역위, ‘당원에게 길을 묻다’ 토론회

6월 15일 나농업회의소

나주·화순지역위는 지난달 15일 오후 ‘당원에게 길을 묻다’는 주제로 나주농업회의소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상향식으로 전달하여 당원이 주인이 되는 든든한 지역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퍼실리테이션’이란 새로운



형태의 토론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방의원과 핵심당원 80명이 8개 조로 나눠 원탁분임토론을 통해 다양한 지역 이슈 및 당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정훈 위원장은 종합토론에서 “현장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만들겠다”며 “희망찬 나주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빛가람 SRF 열병합발전소 해결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빛가람 주민여러분!

빛가람의 SRF 열병합발전소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의 활동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7일 회의에서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환경영향조사의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수용성 조사범위를 반경 5km 이내의 법정리·동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는 전향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고 합니다.

우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인내와 양보를 통해 한 걸음 진전된 합의안을 이끌어 내신 주민대표와 나주시, 한남과 정부당국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주민과 지역사회가 대승적 관점에서 최종적 합의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빛가람 주민여러분!

저와 민주당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SRF 열병합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저와 민주당의 선의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그간의 분란을 초래해 왔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주민이 제안하여 시작된 거버넌스의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게 지켜보았으며, 거버넌스의 이번 합의사항은 열병합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환경영향조사와 함께 주민 수용성조사를 통해서 가동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번 합의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주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교육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와 한남, 전남도가 참여한 합의안은 예상되는 매몰비용과 추가적 비용에 대해서도 참여기관이 함께 풀어내겠다는 의지와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와 당 지역위원회는 거버넌스의 합의야말로 빛가람 열병합 발전의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합의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와 지역위원회는 거버넌스의 최종적 합의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주민들의 뜻에 따라 최선의 에너지 대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SRF 정책의 전환으로 인한 매몰비용 등 지역의 재정적 부담과 책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빛가람 열병합 문제를 둘러싼 그동안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기좋은 빛가람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거버넌스 합의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고 열병합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민선 7기 1년

“어둡고 그늘진 곳 살피고 현장 목소리 경청할 것”

강인규 나주시장, 민선7기 1주년 ‘민생 현장’행보
농산물 수확 현장, 노인복지시설, 양파사주기 발대식 등 방문

나주시 강인규 시장은 1일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생 현장 곳곳을 방문하며 2년차 발걸음을 시작했다.

강 시장은 이날 ▲로컬푸드 농산물 수확 현장 ▲노인복지 시설 배식봉사 ▲사랑의 양파 사주기 행사 ▲무더위쉼터 방문 ▲배수펌프장 등 안전시설 합동 점검 등 민생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또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직원 정례조회를 통해 1주년 주요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하반기 시정 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

강 시장은 오전 7시께 삼도

동 소재 블루베리, 대추토마토 등 로컬푸드 출하 농가 방문을 시작으로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산물 수확에 참여했다.

나주시는 민선 7기 출범 후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전담 부서인 ‘먹거리계획과’ 신설을 비롯해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 확대 협약 체결, 농식품부 주관 푸드플랜 패키지 전국 1위 선정, 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포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자치 농업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강 시장은 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 점심 배식 봉사에 참여한 뒤 오후에는 산포면 소재 호남권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

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양파 소비확대 발대식’에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어 산포면 등정 1리 무더위쉼터와 남평 수원리 배수펌프장을 차례로 방문해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 각종 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강 시장은 경로당 주변 배수 시설, 냉방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장마와 폭염 시 행동요령을 직접 안내했다.

강 시장은 “지난 1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어둡고 그늘진 곳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나주시, 사랑의 양파사주기 운동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와 연계해 양파(20kg) 2만5천명 판매를 목표로 주요 공공기관 등에 ‘사랑의 양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주의 양파 재배면적은 약 176ha로 생육 환경이 좋아 생산량이 10ha당 약 6,772kg로 평년대비 12%가량 증가했다.

올해 양파가격은 생산량

급증으로 40~45%정도 폭락서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까지 시청 분청 실·과·소, 읍면동 직원들에게 1,915명을 판매했다.

특히 다시면은 재경향우회 등과 연계해 서울 종로·동대문구에 양파 500명과 600명을 각각 판매하는 등 이번 운동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산지폐기, 판로확보, 양파 사주기 운동 등 적극적인 대책으로 농가들의 고민을 해소해가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화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공동마케팅 추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남도팸투어’공동 운영 운주사-고인돌공원-황포돛배-국립나주박물관 투어

나주시와 화순군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남도 팸 투어’ 협약을 맺었다.

양 시·군은 지난 5일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광주시관광협회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및 마스터즈 수영대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남도 팸투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구충곤 화순군수, 정길영 광주시관광협회 수석부

회장을 비롯한 3개 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대회 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남도 팸 투어 운영을 비롯해 관광 체험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등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남도 팸 투어는 나주-화순 4개 관광지(운주사-고인돌공원-황포돛배-국립나주박물관)를 둘러보는 버스 투어

로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40회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관광협회는 내·외국인 관광객 모집을 위한 홈페이지 및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관광문화해설사와 통역사 상시 배치 등 양 시·군과 공동마케팅을 진행한다.

나주시는 또 주요 관광지 홍보 리플릿 및 체험 시설 정보 제공, 황포돛배 탑승비용 할인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강인규 시장은 “상호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는 물론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군수는 “화순·나주 공동 팸투어는 물론 화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팸투어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3·1운동 유적지 기념탑 제막식

화순읍·동북·능주·도암 등 4곳...100년 전 ‘만세 함성’기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3·1운동 유적지 4곳에 기념탑 건립을 완료했다.(사진)

군은 지난해 4월 기념탑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억8천만 원을 확보하고 화순읍, 능주면, 동북면, 도암면 3·1운동 유적지 4곳을 건립 장소로 확정해 이날 도암면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입구에서 기념탑 제막식을 열고 건립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5일 동북면 동북시장을 시작으로 8일 능주시장, 11일 화순읍 개미산 입구에서 기념탑을 제막식을 가졌다.

제막식에는 신정훈 지역위원장, 강순팔 군의회 의장, 문

행주 도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독립운동가 후손, 사회단체와 군 관계자 등 수백여 명이 참석해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겼다.

신정훈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등 비상식적인 무역 조치와 관련해 조상들의 충의와 애국정신을 되새기게 된다”며 “기념탑에 새긴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항일운동 역사를 재정립하자”고 말했다.

제막식에 참석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100년 전에 있었던 3·1운동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기념탑을 세우게 돼 뜻깊다”며 “독립운동 계승과 기념탑 건립에 뜻을 모아 준 관계기관과 지역 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 당원 연수 대성황

당원 600여 명 총선 승리 결의 다져(6일 담양문화회관)
이인영·정세균 축하, “선당후사, 이제 힘 실어주자”
‘이개호와 생생 토크’각계각층 패널들과 공개 토론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는 지난 6일 담양문화회관에서 당원연수 행사를 갖고 당원 역량을 키우는 소양 교육과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원 600명이 참석했으며, 이인영 원내대표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중진 국회의원들이 이개호 장관의 중앙정치 활약상을 소개·칭찬한 축하영상이 쇄도했다.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제 대학 선배인 이 장관님은 제가 닮고 싶은 정치선배이기도 하다”며 “선당후사의 장본인 이개호 선배님이 더욱 큰 일

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자”고 추켜세웠다.

이날 행사에서는 ‘핵심당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당활동 하기’라는 선관위 주제특강에 이어 ‘이개호와 생생토크’도 진행됐다.

각계각층의 패널들과 방청객 당원들이 정치, 농업, 지역현안, 서민정책을 묻고 건의하자 이 장관은 전문적인 식견을 뽐내며 일일이 답변해 박수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탄생에 일조한 대선과정과 입각 뒷이야기도 털어놓았다.

이 장관은 “누가 우리 지역구민들에게 ‘그 동네 국회의원은 누구요?’라고 물으면 ‘바로 이개호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열심히 일했다”며 국회 의정활동과 장관으로서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바탕은 바로 당원동지들과 지역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 덕분”이라며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지역 발전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이개호의

가슴 따뜻한 정치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내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 1년을 맞는 이 장관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각 포함 가능성이 큰 가운데 쌀 값 인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AI·구제역 차단, 청년농 육성, 공익형 직불제 추진 등의 성과를 냈다.

이개호 장관, 양파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 캠페인 ‘앞장’

세종 청사 앞 ‘양파·마늘사랑 캠페인’전개(7.3~31일)

양파 수확현장 방문, 지자체·수출업체·생산자와 타개책 논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국 곳곳을 누비며 현재의 양파 상황을 타개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17일 함평 양파 수확현장을 방문해 산지 양파 수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양파 가격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필요한 정책 추진하겠다”며 어려움에 직면한 생산농가를 위로·격려했다.

이어 19일에는 지자체·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회를 열어 수출확대를 통한 양파시장 안정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양파 소비촉진에도 적극 나섰다.

이달 말까지 세종청사 농식품부 앞마당에 11만 농림가족이 함께하는 ‘양파·마늘 사랑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행사 첫날인 지난 3일 이 장관은 판매원을 자처, 양파 소비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농식품부 직원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데 앞장섰다.

이 장관은 “11만 농림가족이 농업인과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한다”면서 “법국민적 소비촉진 할인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장관, 장성 한여농 6일 여성농업인대회 참석

이개호 의원(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6일(토) 장성 농업인회에서 열린 ‘제16회 장성 한여농 여성농업인대회’에 참석해 여성농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국여성농업인장성군연합회 주

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이개호 의원은 “매년 빠짐없이 여성농업인 대회에 개근해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더욱 씩씩하고 힘차게 지역 농업 발전과 밝은 장성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개호 장관, 호남미래포럼 초청 강연...10일 웨라톤서울호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 웨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 미래포럼’(이사장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선임 공동대표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초청 강연을 실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제27회 조찬포럼에서 각계각층 인사 및 미래포럼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정치와 호남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호남미래포럼은 우리나라의 미래 개척을 호남이 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12월 창립대 이용훈 전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한갑수 전 농림부 장관,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 등 호남 연고 각계인사 650여 명이 참여해 재능기부 애향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이개호 국회의원, 20대 국회 법안처리율 ‘으뜸’

대표발의 70개 법안 중 30개 통과...처리율 42%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의 법안처리율이 20대 국회 들어 42%에 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연속된 국회 공전으로 각종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겸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15일 이개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대표발의한 70개의 법안 중 30개를 통과(처리율 42%)시켜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한 의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분류됐다.

주요 제정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법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안 등이 있다



개정 법률안으로는 ▲지역농협에 중소기업지위를 인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촌 학교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지원을 명시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특별법’ 등 민생분야를 아우르는 개정 법률

안도 다수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 활동이 입법활동인 만큼 20대 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다양한 민생법안을 발굴하고 통과시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 선출직 간담회

이개호 의원 “도덕성 갖춰야 군민에 당당”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원회 선출직 간담회가 지난 2일 영광에서 열렸다. 지역위원장인 이개호 의원(농식품부장관 겸임)과 김준성 영광군수, 최형식 담양군수를 비롯한 4개 군의 민주당 소속도·군의회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농림부 장관으로서 쌀값안정, 조류독감 완전 퇴치, 가축전염병 조기 방제, 2018년 농가소득 4200만원 달성 등의 성과를 보고하고 “국회의원이자 장관으로서 지역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집권 여당 소속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정능력은

물론 도덕성을 갖출 때만이 군민들에게 당당할 수 있다”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담양 최형식 군수, 김정은 군의회의장, 박종원·김기성 도의원, 김기석·이규현·최용호·김성식·김미라 군의원 ▲장성 차상현 군의회의장, 김한중·유성수 도의원, 임동섭·김미순·김희식·이태신 군의원 ▲영광 김준성 군수, 강필구 군의회의장, 이장식·장세일 도의원, 박연숙·임영민·최은영·하기억 군의원 ▲함평 정철희 군의회의장, 임용수·김경자 도의원, 허정임·윤행만·정경임·정현웅(복당)·김형모·김영인 군의원.

이개호 장관, 영광 한빛원전 수동정지 사고 간담회 실시



“사고원인 규명, 군민납득 때까지 가동중지”

이개호 의원(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25일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고와 관련, 한수원 정재훈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건 축소에 급급한 한수원의 사후 대응이 군민들의 분노를 더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엄중하게 인식해 제3전문기관에서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군민들이 납득할만한 조

사결과와 완벽한 안전이 보장 될 때까지 한빛 1호기는 절대 재가동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영광군민과 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영광지역위 사무소에 고 이희호 여사 추모 분향소 설치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는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영광지역위 사무소에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개호 의원(지역위원장)은 “故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생 동지이자 동반

자이셨던 이희호 여사님께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까. 슬픔을 함께해주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인생의 반려자였던 이희호 여사는 지난 10일 97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이개호 장관, ‘마늘수급 정대책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5일 마늘가격 폭락 사태와 관련, 마늘 3만7천t을 산지 출하기에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 수급 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특히 마늘이 올해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

로 평년 대비 3만4천t 수준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산지거래가 매우 침체돼 적극적인 수급안정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앞서 정부는 사전 면적조절, 수매비축 등으로 마늘 1만2천t을 시장격리하기로 발표했으나, 향후 시세 불확실성에 따른 산지거래 위축 등이 예상된다는 이날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또 수입산 종자용 쪽마늘을 1천 이상 국내산 마늘로 대체기로 했다.

민선 7기 1년

최형식 담양군수 “지속가능한 생태전원도시 육성”



친환경 위생농업 실천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 문화재생사업으로 관광 활성화·지역경제 활력

“원도심의 전통시장을 루프탑 가든형 시장으로 바꾸고 주차환경 개선, 전망대 설치 등 전통시장을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최형식 군수는 민선 7기 취임 1년을 맞아 공약 이행상황과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이라는 군정 비전의 실현을 위한 그 동안의 성과를 밝혔다.

최 군수는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서비스형 지방정부의 3대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군민희망 3대

약속과 약속실현 10대 핵심정책을 추진해 ‘소득 4만 달러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군정의 최우선 목표인 강한 농업군 구현을 위해 친환경 농업 정착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가공과 관광을 융합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 또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회의소 구성, 농민현장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대안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담양산단 근로

여건 개선, 농어업 유통활동가·드론 운영 전문가·조경수 조성 관리자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대안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방치된 봉산면 양지분교에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유치해 2021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첨단문화복합단지 기준 준공되면 국제학교도 입주 예정이어서 대안교육도시로서 우뚝 설 전망이다.

관광분야는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재생사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과거 담양의 가장 큰 산업시설이었던 해동 술공장을 문화 창작 및 예술·전시공간으로 새롭게 재생시킨 해동문화예술촌이 지난달 1일 정식 개장해 문화관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향후 예술촌 주변에 담빛길 문화생태도시와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의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형식 담양군수, 지속가능부문 ‘2019 최고경영대상’



최형식 담양군수가 지난 3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2019 최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속가능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19 최고 경영대상’은 각 부문별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전국 기관,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주는 상이다.

민선 3기 이후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까지 담양을 이끌고 있는 최 군수는 생태와 인

문학이 어우러진 ‘담양다움’을 기반으로 한 생태도시화 전략으로 군정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생태와 인문학이 어우러진 담양만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을 군정에 녹여내 담양을 800만 관광도시로 이끈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 군수는 “지금까지 군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행복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영광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청사 개소...6월 24일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달 24일 영광읍 중앙로3길 10 영광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읍사무소 구 청사는 1984년 준공 후 36년 동안 사용하

여 2016년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은 노후 건물이다.

이에 따라 군은 2018년 신청사 건립비(55억 원)를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청사신축을 시작, 이날 완공했다.

김준성 영광군수, 취임 1주년 현장서 소통군정 펼쳐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1일 군청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취임 1주년 기념 및 7월중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김 군수는 이날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지역사회분위기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정례조회로 대체하고 지난 1년간의 주요 군정 성과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군수는 정례조회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준 군민과 공직자들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뒤 인사말을 통해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이 모든 것은 군민들의 성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조회를 마치고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건설을 위해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일환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장애인복지타운, 지중화·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소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김 군수는 견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과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살피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준성 영광군수, 민선7기 군정평가단 위촉식 및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과소장, 군정평가단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군정평가단 위촉식 및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평가단은 부서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6개 분야 42명으로 구성되었다.

평가단은 앞으로 3년 동안 군정 주요업무 평가, 군 현안업무의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 공약 평가 등의 역할

을 하게 된다. 현재 김준성 군수의 45건의 공약 중 ‘가정용 TV수신료 지원, 1천원 버스, 결혼장려금 지원,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 8건’이 완료되었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조성, 청년창업단지 조성 등 37건’은 정상 추진 중으로 현재 종합진도율은 41%이다.

김 군수는 “군정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평가단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남 위원장, 고흥 녹동농협 등 마늘 공판장 현장방문

“마늘·양파 등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제도화해야”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고흥군 녹동 농협 마늘공판장 등 고흥군 3개 지역 공판장을 방문, 마늘 수매에 나온 농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공판장에 나온 마늘 농가 농민들은 “올 초 이상기후로 인한 마늘 품질에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며 “올 초 극심한 일교차와 가뭄, 5월 출하 직전 강우와 기온 급상승으로 인해 ‘햇빛데임’ 현상이 나타나 마늘 출하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농민들은 또 “출하된 마늘가격이 하루 사이 40% 이상 차이를 보이며 동일 제품에 대한 가격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1년 농사를 어렵게 지었는데

마늘가격이 폭락해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승남 위원장은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농민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정부의 정책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마늘·양파 등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제도화해 농가들의 최저생산비 보장과 유통거래과정에서 농산물의 투기화를 방지, 출하시기에 수입 농산물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2019년산 마늘 수급 안정대책 당정협



의회’를 열고 올해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마늘 생산량이 평년 수요량보다 3만4천t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늘 3만7천t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사전 면적조절, 수매비축 등으로 마늘 1만2천t을 시장격리키로 했으나 산지거래가 위축돼 2만5천t을 추가로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김승남 위원장, 장흥 회진면 ‘2019 씨레시킴’ 행사 참석



김승남 지역위원장은 지난 3일 장흥군 회진면의 ‘2019 씨레시킴’ 행사에 참

석해서 풍년농사를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회진면 번영회 주관으

로 회진면 다목적홀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씨레시킴’은 전라도방언으로 마을의 모내기가 전부 끝나면 씨레를 깨끗이 씻고, 음식을 장만해서 풍년을 기원하고 농사일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한 전통행사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관산읍 ‘농촌 재능나눔 의료봉사 MOU 체결 및 봉사활동’ 현장에서 젊은 의료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따뜻한 손길에 감사인사를 하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기원했다.

거금농협 장수대학 총동문회 수련회 참석

“배움에는 끝이 없다” 어르신 학생들 격려

김승남 지역위원장은 지난 9일 고흥 거금도농협 장수대학 총동문회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거금도농협 장수대학은 관내 거주하는 조합원 및 농협 고객 중 65세 이상 7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해 농협대학과 협업을 통해 총 11회차에 걸쳐 일반교양, 건강관리, 행복한 노후생활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기를 시작으로 3기까지 총 307명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승남 위원장은 “교육을 통해 후회 없는 삶, 긍정이 넘치는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고흥민주산악회 7월 정기산행...6일 고흥 장기산

김승남 위원장, 장흥민주산악회서 정기산행도 참여



고흥민주산악회 7월 정기산행이 지난 6일 박진권 산악대장의 안내로 고흥군 도양읍 장기산에서 실시됐다.<사진>

이날 산행에는 김승남 지역위원장과 전명숙 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200여 명이 참여해 화합과 단결의 시간을 가졌다.

김승남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월 29일 전북 순창 강천산에서 열린 장흥민주산악회 정기산행에도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장흥이 아닌 순창의 강천산으로 원정산행을 왔음에도 많은 동지들께서 참여해 감사드린다”며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하자”고 말했다.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 장흥·강진 당원 연수 ‘대성황’

당원 1천여 명 참석, ‘총선 승리’ 결의 뜨거운 함성

5·18 역사왜곡, 일본 경제침략 文정부 탓 ‘매국 행위’ 한국당 규탄

최근 장흥·강진지역에서 열린 ‘핵심당원·신입당원 연수 및 임명장 수여식’에 두 지역 당원 1천여 명이 참여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승리를 결의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회(위원장 김승남)는 지난달 25일 장흥 하나로마트 2층 대강당에서 500여 명의 지역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신입당원 연수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8분 분량의 ‘국민과 함께 민주 60년’ 당 홍보영상물 상영을 통해 당원들에게 자랑스런 민주당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

당의 이념을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 광주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당의 강령과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의 10년의 성과에 대해서도 영상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소개했다.

김승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정국과 관련, “한국당이 자신들의 주도로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사문화시키고, 5·18 역사왜곡과 대통령 비하 막말을 일삼는데 이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김 성 전 장흥군수와 김명환 전 전남도교육위원을

지역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당직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성 전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대성황을 이룬 당원들의 뜨거운 열기를 모아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단합하고 화합하자”고 말했다.

지역위원회는 또 지난 8일 강진아트홀 2층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핵심당원, 신입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연수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각계 각층의 강진 당원들이 이날 당원 역량을 키우는 소양교육과 함께 임명장 수여식과 소통·단합의 시간을 가진 뒤 총선 승리를 결의했다.



김승남 지역위원장, 이희호 여사 분향소 설치 조문객 맞아



김승남 지역위원장은 지난 달 12일 보성군청 분수 광장에 마련된 고 이희호 여사의 분향소를 찾아 영정에 헌화하고 조문했다.

이날 조문에는 임영수 도의원(안전건설소방 위원장), 보성군의회 신경균의장 외 7명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여했다.

김승남 위원장은 “고 이희호 여사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려자이자 정치적 동지로서 평생을 민주화와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오셨다”며 “고인의 민주화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위원장, 장흥노인복지관 급식배식 봉사활동



김승남 지역위원장은 지난 달 21일 장흥노인복지관에서 장흥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과 함께 급식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어 이날 오후 용산면 운

주리 쇠똥구리마을 ‘씨래시침’ 행사에 참석해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린 뒤 유치면 직원과 이장자치회의 한마음 행사에 참석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보성군, ‘호남의병 역사공원’ 보성 유치 결의대회

김철우 군수, “보성은 역사공원 조성의 최적지”



보성군은 지난 3일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호남의병 역사공원 조성’ 보성군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김철우 군수, 신경균 군의회 의장, 의병유족, 각급 사회단체장 및 읍면민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호남의병 역사공원을 보성으로!’라는 구호를 시작으로 열렸다.

이어 전남대 노기욱 교수는 ‘호남의병, 보성에서 함성을 울리다’라는 강의에서 호남 의병사에서 보성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

했다. 보성군은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해상병의 거점이자 전라좌의병의 구심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작년에는 ‘보성 의병사’를 발간해 독립운동의 아버지 나철, 독립운동 선각자 서재필 등 777명의 위인을 발굴하는 등 의병 역사 선양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국충절 의향의 도시 보성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역사공원 조성의 최적지로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1년

김철우 보성군수, 취임 1주년 '현장에 답이 있다'

배수펌프장서 간부 회의...지역민과 소통 강조



김철우 보성군수는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요 간부 공무원, 지역주민과 함께 별교장좌배수펌프장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간부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은 김 군수와 함께 별교지역 배수펌프장 시설 현황, 여름철 물놀이 시설 운영 계획 등을 보고받았으며, 별교읍내 배수펌프장 2곳과 다중밀집시설인 별교역 주변 도로확장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우기철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군수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폭염대비 방법을 설명했다. 이어 여름철 집중호우 시 논 물대기 등에 대해 당부하며 한발 앞선 소통, 두발 빠른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김 군수는 작년 7월 1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취임식을 취소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보성동암교 아래에서 첫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태풍현장에서 첫 임기를 시작했었다.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김 군수는 보성군을 재난

위기상황에서 구하면서 읍면단위 '전국 최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는 "작년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군민과 행정이 하나 되어 재난안전분야 전관왕이라는 영예를 안았다"며 "재난은 발생시점에 대처하면 피해가 커지므로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 전남교육청과 교육문화시설 건립 업무협약



김철우 보성군수는 16일 장석용 전남도교육감과 교직원 교육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직원 교육문화시설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회천면 일대에 조성되며 약 40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또 완공 후에는 연간 5만여 명 이상의 교직원 가족이 보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의 교육문화시설 건립 유치는 남해안 해양 관광 거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보성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교육가족들이 더 오랜 시간 보성에서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옥 강진군수, 취임 1주년 맞아 '여민동락 다짐'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 1일 공직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취임 1주년 기념 7월중 정례조회를 갖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준 공직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례조회에 앞서 이 군수는 다산초당에 올라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마음가짐을 다지고 실천에 옮길 것을 다짐했다.

강진군은 정례조회에서 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과 모범공무원 유공자 표창, 명예군민증 수여식이 있었으며 지난 1년간의 주요 군정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군정 방향을 점검했다.

이 군수는 민선7기 1년 최고의 성과로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 이룬 강진 산단 100% 분양

을 꼽고 "이 모든 성과는 공직자와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모아줬기에 가능했다"며 "탐진강의 기적을 만들어준 군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다산 선생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옥 군수는 취임 이후 군

민과의 소통행정을 위해 직능 단체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군민이 주인인 더불어 행복한 강진 건설을 위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직원과의 소통·공감을 위해서는 매일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 역대 군수 초청 간담회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역대 군수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29대 문덕형, 32대 백종철, 33대 박재순, 38대 윤동환, 42~43대 강진원 전 군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는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강진군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임채용 기획홍보실장의 군정 보고,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군정보고 주요 내용으로는 군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을 소개한데 이어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의재 저잣거리와 영랑생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승옥 군수는 "역대 군수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의 강진이 이뤄졌다. 강진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많은 조언과 발전적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이원욱 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

무안군 해제 양파 재배단지 민생탐방...5월18일 시장격리 물량 확대 등 농가지원 대책 추진키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대표단이 18일 무안군의 양파 재배단지를 찾아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대로 산지폐기를 추진 중인 양파농가 민생탐방 행사를 실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5·18 제39주기 기념식을 마치고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 해제면으로 이동, 양파·마늘 등 채소류 작황을 살펴보았다.

원내대표단은 무안군 해제면 황토갯벌랜드에서 무안농

협 노은준 조합장과 서남부 채소조합 배정섭 조합장 등으로부터 양파생산 현황 브리핑을 받은 뒤 인근 양파밭으로 이동해 2년 연속 산지폐기되고 있는 양파 작황을 직접 둘러보고 지원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노은준 조합장은 “올해 무안군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소폭(403ha, 2.2%↑) 증가했으나 생산량은 사상 최대의 작황호조로 평년 대비 15만1천톤이 과잉 생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에 따라 무안에서는 조생양파 61.3ha에 이어 중·만생 양파 20.6ha가 벌써 산지폐기 됐다. 지난해에는 양파값 하락으로 60.5ha의 양파가 폐기됐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농림부와 협의해 조기 산지폐기와 시장격리 물량 확대 등 현실적인 농가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탐방에는 이 원내대표와 이원욱 수석부대표(경기화성읍), 정춘숙(비례)·박찬대(인천연수갑) 원내대변인,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도당위원장)·표창원(경기용인정) 부대표 등 13명의 원내대표단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논평

5·18 제39주기, 5·18 역사왜곡 비호하는 한국당을 규탄한다

80년 5월 그날의 함성으로부터 어언 39년. 5·18은 이제 세계적인 민주화 및 인권운동의 표본으로 각인되면서 전 세계인들이 찾는 기념비적 행사가 됐다.

하지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현대사의 비극인 5·18을 왜곡하고 5월 영령들을 모독하는 통탄할 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다. 5·18에 대한 끊임없는 역사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의 한 축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다.

공당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행위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5·18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가로막더니, 일부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5·18을 북한군 소행으로,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매도했다. 지난해 제정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진상조사위는 한국당의 비협조로 8

개월째 표류하고 있고, 5·18역사왜곡처벌법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심지어 북한군 개입설 유포자인 지만원 등을 5·18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 검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터무니없는 역사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를 비호하는 한국당에 대한 지역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발포 책임자 규명, 헬기난사 등 미완의 5·18 진실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한국당이 내란수괴죄 등으로 단죄를 받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후에 정당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5·18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하고 미완의 5월 광주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 5. 18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현안 서면 브리핑

일본의 치졸한 보복성 수출규제 극복에 국민의 힘을 모아주시요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성 규제 규정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외교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 경제를 파탄낼 이번 조치를 철저히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폄하와 국민모독을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대책을 위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비정상적 수출규제는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1차적으로 제재 철회와 기업 피해 최소화, 재발 방지를 위해 긴밀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고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아베 정권의 교활한 작전이 시작됐다. 강제동원을 핑계 삼아 한국을 희생양 삼고 전 세계 첨단 산업을 인질로 삼은 것”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적극 지원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우리 당은 12일 현장 최고위원회를 수출 규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찾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를 극복할 대응 방안 마련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주시요.

2019. 7. 11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일본 경제보복에 관한 팩트체크

- 한일관계 악화가 문정부 탓?
- 외교위기 과장하는 외교보도

EX) 아베 직접 압박...문은 이를 재'침묵'(문화일보)
· 한일관계 악화 책임있는 청, 막상 일 보복조치 나오자 침묵(조선일보)
· '메고된 보복에 정부 안이' 비판 목소리(동아일보)

NO!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사전준비와 함께 [7월 1일] 발표했듯이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 국내법에 의거적극적인 대응 조치 중에 있으며, 강제보복 대응을 위해 반도체 부품 소재 분야에 추경예산 대폭 반영 등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총력

- 한국측의 무역관리 체제 부실로 인해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섰다?

NO!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하 전략물자 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

- 한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원재료 불화수소가 화학 무기인 사린가스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NO!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며, 최근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입한 불화수소가 복안을 포함한 UN금지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

일본의 치졸한 보복성 수출규제 극복에 국민의 힘을 모아주시요.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당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문재인 케어가 7월 1일부터 확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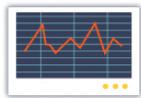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1,775개 동네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최대 **4만 2천원(2인실 기준)까지** 환자부담이 줄어듭니다!

응급실·중환자실 건강보험 적용

응급검사,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125개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확대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로 확대 (본인부담률 일부 차등 적용)

또한,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촉진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2년! 더이상메디컬 푸어는 없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생활이 어려운분들의 의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천억원** 의료비 경감!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54% **'잘한다'**고 응답

국민 75% **'만족한다'**고 응답

국민 **75%**
문케어 만족



자유한국당의 건보료 재정 고갈 주장은 근거 없는 비판일뿐!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계획과 같이 적정규모의 적립금과 지출합리화방안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료 폭탄운용하는 것은 가짜뉴스**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보장성확대를 막아 병원비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픈 국민의 손을 끝까지 잡아드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정 협의**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2019년 6월 13일

우리 마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장님! 통장님! 감사합니다~!

15년간 동결되었던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며 이장·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장과 통장이 더욱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으로 사기 진작과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동네를 **더** 잘 부탁드립니다!

